

구미사회의 편지문화

1. 본고의 취지

「편지문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어려운 것이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편지에 관한 관습과 그 배후에 있는 생각과 느낌」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편지 또는 편지로 분류되는 것의 기본적인 역할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같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면 풍속·습관이 다르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사회에서 옳은 행동인가, 어떠한 것을 존중하는가, 어떤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어떠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가등 각 습관의 배후에는 각각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것을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일본과 대조적인 것들을 추려서 구미인과의 교제나 거래에서 주의해야 할점을 설명하며 동시에 구미 스타일에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재로서의 편지

우선 구미사회에서의 편지의 위치를 알려면, 역사적인 것도 필요하므로 잠깐 이

점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편지는 문자와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서력 기원전 수천년의 옛날 고대 오리엔트 왕조시대의 이집트에도 있었고 그리스를 거쳐 특히 광대한 영토를 갖었던 로마 시대에 이르러 편지는 크게 발달했고 아우구스투스제왕(B. C. 27~A. D. 14) 후기에는 역전제가 설정되었다고 한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B. C. 65~8)는 운문의 서간을 남겨 그후 오랜 후세에 까지 이어진 서간체의 전통을 열었다.

구미사회의 정신적기반으로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성서인데 그 신약성서의 후반은 실인즉 편지이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과 그밖의 사람들은 각 지의 교도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전도하고 있다.

편지의 형식을 취한 소설(서간체소설)은 일본에도 있으나 특히 서양문학에 많다. 17세기후반으로부터 19세기중엽 특히 18세기에 많다.

영국에서는 리차드슨의 「빠미라」,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큐의 「페르샤인의 편지」, 루소의 「신 에로이스」, 라스로의 「위험한 관계」, 독일에서는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등 모두 19세기의 작품, 러시아에

- 1. 본고의 취지
- 2. 문화재로서의 편지

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 19세기중반에 나왔다.

그 배경으로서 유럽제국에서 도로망이 정비되고 우편마차에 의한 우편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편지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되었다고 생각된다. 전기한 리차드슨의 소설「빠미라」는 실은 모범 서간집의 기획에서 나왔다 한다.

편지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편지 쓰는 법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고 생각된다. 단지 형식상의 노우하우가 아니라, 유명인의 편지가 화제로 되어 남겨진 편지 또는 편지형식의 작품에는 신학이나 철학을 논한 것 사회비판을 한 것 등이 있고, 문체, 내용이 모두 높은 수준이면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되었다.

3. 현대생활과 편지

옛이야기는 이쯤으로 하고 현대생활과 편지의 이야기로 넘어 가기로 한다.

인구와 연간발신통수의 비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수집된 것이 없으나 다년간 비즈니스영어를 연구하고 있으므로 편지전반을 고찰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과 외국인과의 편지왕래가 비교적 많았다는것등을 근거로 일본과 구미와의 관습이라든가 인식의 차이를 주관적이긴 하지만 살펴 보기로 한다.

교통기관및 전기통신의 발달, 더욱이 다방면으로 바쁜 현대생활에 있어서는 느긋하게 편지를 쓴다든지 읽는다는 것 자체를 즐기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동서를 불문하고 같을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문자를 멀리하는 경향이 격심하고 곧

바로 전화에 매달리든가 근거리이면 자동차로 달려간다. 이도 역시 동서가 모두 비슷할지 모른다. 그러나 전달방법의 선택에는 그나라의 사회관습적인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마땅히 방문하여 말씀드려야 하겠으나 실례입니다만 서한으로 부탁(또는 인사·감사)드리느 바입니다」라는 식의 글월이 많다. 방문, 편지, 전화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관계를 포함한 정황과 용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편지에서는 곧잘 「실례입니다만」이라고 먼저 사과하는 점에서 순위가 느껴진다. 그러나 서양식이라면 편지를 올려 실례한다는 식의 인사말은 듣지 못했다.

영어의 편지나 사교의 가이드에서는 만찬회등에서 환대를 받은 후의 감사장(브레드 앤드 버터 레터) 그밖에 덩큐레터는 지체없이 직접 자기자신이 쓰도록 해야 한다고 이르고 있다. 이런 종류의 사례를 전화로 말한다하여 결코 좋지 못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상대방의 형편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전화를 받도록 불려내어 단지 감사의 뜻만 말한다는 것도 오히려 폐가 될수 있다.

선물을 백화점으로 하여금 배달시키고 한마디의 인사말조차 없다는 것은 일본특유의 방법인지도 모른다. 꽃한다발을 보내는데도 멧세지를 첨부함이 예의에 맞는다.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보내온 선물에 대해 감사장을 써 보내는 것이 최근의 일본식인데 실인즉 이런 선물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구미에서는 사교상 편지의 지위는 여전히 높다고 보아야 한다. 초대와 승락여부

는 용지·인쇄·서식등에 있어 나라마다 풍습이 각각 다르고 경조·증답및 그의 사례에 대한 편지는 일본인이 생각하는바 이상으로 중요하다.

비즈니스레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가정에도 웨밀리 비즈니스레터라고 칭하는 것이 있다. 상품의 주문이라든가 아이들의 학교와의 연락등 일본에서의 경우보다 훨씬 편지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4. 비즈니스와 편지

비즈니스에 있어 편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바이지만 문장에 의한 설득방법에 관해서는 힘을 덜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미에 상업영어의 책이 많은데 비하면 상업일본어의 책은 거의 없다. 공용문을 쓰는 법 등의 책은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어떤 방법으로 고객의 심리에 호소해서 판매할 것인가. 고객으로 부터의 고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등에 대하여 문장에 의한 설득술을 잘 설명한 책은 거의 없다.

시험삼아 미국이나 캐나다의 호텔에 투숙했을 때, 약간 불만스런 점이 있었기에 앙케이트용지에 기입해 놓았다. 그리고 귀국했다니 매니저로부터의 사과편지가 먼저와 있었다. 그리고 개선처리한 바도 적혀 있었다.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고마워 할 것도 없겠으나 재빨리 대응하고 있다는 점과 문장에 신경을 쓰고 있는 점등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구미의 사회에서는 대외적만이 아니라

사내의 커뮤니케이션에도 편지와 유사한 문서가 많다. 사내의 고지·메모등의 종류이다. 일본에서는 대소의 회의가 많은데 단지 통지만하는 것이라면 메모를 활용하는 편이 모든사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메모를 사용하는데는 책임의 문제도 있다. 부재중인 사람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전달하는데에 메모를 사용하여 또한 사본을 보존하면 확실히 전달한 증거가 된다. 외국투자회사에서는 옆자리 사람들끼리도 메모를 수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뒤에서 기술하겠지만 구미에서는 법률이나 계약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문서에 의한 증거가 중시된다.

외국판 비즈니스레터의 책에는 반드시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구직의 편지가 있다. 취직운동뿐만아니라, 승진·승급을 요구하는 예까지도 기재한 책이 있다. 소개장·추천장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언급한다.

5. 소개장·추천장

소개장이나 추천장의 비중도 구미에서의 경우가 큰 것 같다. 로마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사교·거래·취직·입학등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런것들은 의뢰인이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쓰는 사람이 자진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다 라는 마음의 자세는 당연하나, 구미에서도 다소의 강요는 있었다. 한다. 미국독립선언초안자의 한사람이며, 식민지 대표로서 프랑스에 있었던 일이 있는 프랑크린은 「잘 모르는 사람으로

4.비즈니스와 편지
5.소개장·추천장

부터의 청탁에 의해 쓰는 소개장의 문례」를 재미있게 쓰고 있다. 강요하는 것은 좋지않으나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도 소개장은 필요하고 유효하다는 뜻이 된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대학, 특히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하면 신청서류중에, 학부시대의 지도교수나 직장의 상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인물소견」 레퍼런스(reference) 또는 레코멘테이션(recommendation) 등 실질적으로는 추천장을 적어도 3통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또한 대단히 상세한 것이며 「학업우수·인격원만」 등으로 형식적인 표현만으로는 용납되지 못하고 본인의 연구능력·어학력·인간관계등등 매우 자세한 질문에 답하거나 또는 추천자가 직접 써야 한다. 입학의 허가는 일발승부의 시험이 아니라 신청서류를 중시하고 이의 철저한 검토에 의한다.

근년 일본에서는 취직시에 추천장을 부탁하는 학생이 줄었다. 기업측에서도 별로 중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미에서는 소개장이나 추천장의 의의는 매우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를 쓰는 사람도 안이하게 생각해서 쓰지는 않는다.

6. 편지와 법 의식

일본과 구미에서 크게 다른 점의 하나는 법률에 대한 의식이다. 일본에서는 어느 편이나 하면 법률을 들먹이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나 구미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가 많이 있다. 변호사가 많으므로 법률사건으로 만드는 일이 많은것 같다.

신서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지에서 기술함은 공자앞에 문자쓰기라 하겠지만 구미에서는 일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법률이나 계약의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먼저, 편지의 서식에 대하여 일본에서도 낱짜, 발·수신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식이 일용 관습화되어 있기는 하나 사신(私信)에서는 낱짜나 서명조차 없는 편지가 꽤 많다. 구미의 서식에서는 이들의 요소를 잊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서명은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워드프로세서가 보급되어 있어 발신자명을 타이프하고 이에 자필의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면 누가 쓴 편지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수 없다.

회사등의 편지에는 압인 한것도 있으나 판독할 수없는 경우 姓만 있는 경우등이 있어 회답을 보낼수없는 경우도 생긴다. 공문서나 상용문에는 최근에 서식이 정형화된것 같은데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신에서도 낱짜나 서명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봉투에 쓴다고는 하지만 더럽혀지거나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 증거로서는 충분치 못하다.

장사에서 뿐만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약의 의사표시로서 하는 편지는 법률행위로서의 의식을 갖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상업영어교육에서는 비교적 잘 다루어지고 있으나 그밖에서는 별로 없는것 같다.

편지에 관한 법률문제에서 주의 해야 할 것은 「문서비방」이다. 일본에서는 별로 없다 하겠으나 구미의 편지책에는 종종 쓰여져 있다. 문서에서 타인을 증상하거나

비방하여 쓴다 즉, 사람의 평가를 추락시키는 사실을 써서 이를 開示하면 취직이나 거래를 방해받아 피해입은 사람으로부터 배상청구의 제소를 받을 염려가 있다. 이 경우의 開示는 반드시 다수의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쉽게 보일수 있게 취급하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인물조회나 회사의 신용조회에서는 먼저 정보를 구하는 쪽부터 비밀엄수를 서약하고 회답하는 쪽은 악의 없이 자기가 아는 범위내에서의 진실을 말함과 동시에 극비로 취급하도록 엄중히 강조한다. 이것만으로 절대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조사대상의 사람이나 회사의 명칭을 비밀로 하거나, 좋지못한 정보만 내놓게 될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는 정도로 한다.

자기앞의 편지를 발신자의 승낙없이 회람시키거나 복사하여 배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사신비공개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것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지만, 일본인은 편지에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다시 강조해 둔다.

7. 국제화와 편지

편지에 관련된 일본과 구라파의 비교는 이상의 것만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음과 같은 느낌을 피력하고 끝내고자 한다.

왕왕이 매사에 국제화를 부르짖는다. 국제화에 필요한 것중의 하나는 일본인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의 개선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본은 한민족, 한언어, 한문화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이므로 말하지 않더라도 알수있는 것이 많아 커뮤니케이션 부족이 되기 쉽다.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말을 걸어오면 즉답하며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를 답하며 모르는 것은 되풀이해서 묻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노! 라고 활발·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의 습관을 길러야 한다.

외국어 회화력도 필요하지만 사교에도 비즈니스에도 편지 또는 편지와 유사한 문서는 더욱 중요하다.

문장의 같고 닮음,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습관의 양성에는 차분하게 편지를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효과적이다.

그런데 일본의 편지에서는 경어 존칭 계열이나 안부에 관한 인사말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하면 글쓰기를 꺼려한다. 구미의 편지에서도 예식은 있지만 별로 번거롭지 않으며 문체도 구어체에 가까워 좋다.

전통적인 미풍은 간직하고 싶으나 합리화 해야할 것은 합리화해서 쓰기편하게 함이 좋을 것이다.

(하네다 아오야마학원대학교수)
(우정 1989. 7)

7. 국제화와 편지